

25년 2월 목회일정

2일(주일)	정기제직회
9일(주일)	성찬가족심방
1-2월(오후)	<기도 :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송영>강설
7(금)-8일(토)	두교회 중고대연합수련회(송정 호호하우스)
22일(토)	유년주일학교 겨울성경학교(예배당)
7일(금)	신학생유치위원회(거제교회당)
18일(화)	신학생 격려 및 장학금전달식(거제교회당)
23일(주일)	덕계중앙교회 헌신예배인도

주간소식

-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 오후예배헌금** / 선교목적(외국인근로자선교회 김성욱선교사)
 - 성찬가족심방** /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1조 - 김요림가정 2조 - 이경준가정 3조 - 구성본가정
 - 성찬조장모임** / 오늘 오후 8시 영상으로 모입니다.
 - 점심식사** / 오늘 점심식사는 각 심방가정에서 하겠습니다.
 - 가정(개안)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 유년주일학교 겨울성경학교 / 22일(토) 본 교회당

금요기도회

- * 일시 / 3월 7일(금) 21시부터 본 교회당
- * 대상 / 전교인(자녀들도 함께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 3월부터 수요일(저녁)기도회 대신 금요기도회로 운영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독)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 기도 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기도회	09:30
	금요기도회	21: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교회 학교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이 달의 봉사자

	02월	03월
교회소식	김영민	고충석
봉 헌	구성본	박지영
안 내	최진언	노주혜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혁정론(고신 개혁 언론)
	파서교회(고신, 강인중)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이요한)
	김성욱선교사(특수지역-M국)
구제	곡성연화교회(최지혁)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장학	고려신학대학원(기동연원장)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 주 / 문경실

주후 2025.02.09.(제29-06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튼튼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최성림 목사
설교 최성림 목사

교회소식

개회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들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언약백성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다.

- * 예배에로의 부르심 ↑ 히10:22(교송)
인도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 회 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 * 축복의 인사 ↓ 고전1:3(다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 경배찬송 ↑ 찬송가38장

죄의고백

- * 십계명봉독 ↓ 신 5장(주계명/봉독)
- * 죄의공적고백 ↑ 제 9형
-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 감사찬송 ↑ 찬송1장(1)

말씀봉사

-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 성경봉독 ↓ 히11:24-26 출32:7-14
- 선포를위한찬송 ↑ 찬송33장(1a-3)
- 설교 ↓ 설교자

중보자 모세의 기도

- 아멘송 ↑ 찬송가643장

성례시행

- 세례식 ↑ 필요시 시행
- 성찬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가227장(1,5) 구제헌금 분병 분잔
- 목회기도 ↑ 설교자

봉사사역

-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33장(4-6b)

폐회

- * 강복선언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계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성찬가족심방		사회 각 성찬조장 설교문 양주동 목사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찬604장(1-2)	
기 도	성찬조원 중	
성 경 봉 독	딤후2:11-3:5	
말 씀 선 포	성찬조장대독	
남녀의 질서		
목 적 헌 금	구제목적	
찬 송	찬604장(2-3)	
주 기 도 문	다같이	
성찬가정심방		
1. 진행		
1) 점심식사는 교회가 준비한 김밥과 컵라면을 가져갑니다.		
2) 심방가정에서 간단하게 식사와 교제를 나눈 후 시작합니다.		
3) 심방가정에 공적심방 외의 어떤 부담도 주지 않아야 합니다.		
2. 성찬가족심방		
1) 심방기도회는 조장이 기도회 순서를 따라 진행합니다.		
2) 드러진 [선교목적헌금]은 조장이 재정부에 전달합니다.		
3) 심방 기도회를 마친 후에는 다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4) 먼저 당회가 제공하는 공적인 나눔으로 나눕니다.		
5) 공적 나눔 이후에는 조장이 자유롭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6) 심방 가정과 참석자들의 상황과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3. 정리		
1) 마치고 헤어질 때는 조장의 기도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2) 마친 후 성찬보고서는 작성하여 담임목사에게 전송합니다.		
3) 주일오후 8시 영상으로 진행하는 성찬조장 모임에서 그 날 기도회와 심방과 교제의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주일설교를 기억하며(증보자 모세의 간구)		
1.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2.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계시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도록		
3.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언약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김성욱선교사(몽골)		
1. 섬기고 있는 생명의길교회가 삼위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되게		
2. 현지인사역자에게 맡긴 몽골장로신학교가 신실한 사역자를 양육하고 몽골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3. 개혁주의신학서적을 몽골어로 번역*출판하는 사역(58권)을 통해 몽골에 개혁주의교회가 굳게서게		
4. 격주마다 모이는 개혁주의목회자 성경연구모임(두 그룹)을 통해 개혁신앙의 실질을 이루어가도록		
외국인근로자선교회(이요한 목사)		
1. 노동과 생활풍속 문화의 차이와 언어로 어려움을 당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어려움을 잘 이기게		
2. 외국인근로자들이 고용주들이나 내국인 동료직원들의 차별없는 대우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3. 이교도인 근로자들이 신앙의 건덕을 지닌 내국인친구들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할 수 있도록		
교회 안의 남녀의 질서를 생각하며		
1. 한 아내의 남편된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와 맡기신 직임을 따라 직분을 잘 감당하게		
2. 한 몸된 남편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도움으로,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역할 다하게		

주간기도회

아침기도회

월~금 6시(교회밴드)

요한복음 묵상

인도 : 최성림 목사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전 9:30(예배당)

[나의 이름을 위한 집]

인도 : 최성림 목사

금요기도회

3월7일부터 시작

금요일 21시(예배당)

지역기도회

인도 : 최성림 목사

* 동부(수, 20:00)

인도 : 양주동 목사

* 김해(월, 19시)

주간성경읽기

주일	욥 3- 4	마26:14-35
월	욥 5- 7	마26:36-56
화	욥 8-10	마26:57-75
수	욥 11-13	마 27:1-14
목	욥 14-16	마27:15-31
금	욥 17-19	마27:32-56
토	욥 20-21	마27:57-66

기도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1 - 캐나다개혁교회 성경공부교재에서 발췌)

기도의 의미는 요청과 탄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요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곧 하나님께서 실재로, 그리고 진실로 존재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에 귀 기울이실 뿐 아니라 그가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 불리는 존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분이 사람과 함께 관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기를 거부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에 귀 기울이심을 믿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사실들을 마음에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종종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많은 언어들로 드리는 그 많은 기도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기도 자체의 내용들이나 문제들이나 질문들을 각각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으실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들 서로 다른 기도자들의 기도를 전부 동시에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은 또한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요청과 간구에 덧붙여 기도는 또한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나는 혼자 이 길을 갈 수 없으며, 나 자신의 발로 설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는 나 자신의 관심 사조차도 살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더 이상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역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수 있는가?

가령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가 기도하면 도움이 될까요? 여기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해답을 찾으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곧 성경은 기도에 관하여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응답을 받은 기도자들의 탄원하는 내용과 그 간구한 것들이 어떻게 응답받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자들의 구하는 바와 결과적으로 그들이 구한 것을 얻지 못했던 것에 관하여서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근거해서 ‘기도는 때때로 도움을 준다’거나 ‘때때로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십시오. 그는 오히려 놀랄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눅 11:6-13).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계속)

정을 잘 가르치고 다스려서 능히 교회에서도 잘 가르치고 다스릴 수 있는 직분자들
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남자다움’(하나님의 말씀
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다스리는 일)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남자의 권위를
지켜주십니다. 남자의 권위는 결코 강한 힘이나 물질의 풍요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
닙니다.

2. 여성의 역할

얼마나 수탉이 무능하면 암탉이 울어야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일반 사회에
서도 무조건 남자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자도 선
생이나 교수가 될 수 있고, 사장도,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
혁자인 존 낙스는 당시 영국의 여왕이었던 메리 스튜어트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메리 여왕이 카톨릭 신자로서 장로교를 비롯한 개신교를 심각하게 박해했
기 때문입니다. 참 신앙을 박해하는 악한 군주에 대해 적대감을 가졌던 것이지, 메
리가 ‘여자’이기 때문에 적대시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존 낙스는 세속군주로서 그녀
를 존중했습니다.

여성의 역할이 바로 세워져야 할 곳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가
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은 남자에게 부여된 역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한 번
여성이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미리암, 한나, 훌다, 마리아 등의
경우에는 영적 지도자 역할을 남자가 수행했습니다). 드보라입니다. 그녀는 이스라
엘 자손을 재판하는 사사였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무
찌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야만 한다
고 졸랐습니다. 게다가 바락이 죽었어야 할 가나안 군대장관인 시스라도 여성인 야
엘의 손에 죽습니다. 이는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남성 직분
자가 유약하고 어리석으며 아예 씨가 말라버려서 여성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이 여자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만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가 무너
졌음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오늘날 여성안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직분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
니다. 따라서 여자는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남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혼인언약으로 하나가 된 남자와 여
자는 “한 몸”이기에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곧 “함께 세워지는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어느 한 쪽의 능력과 기지로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따를 때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남자다운 남자와 여자다운 여자가 더욱 빛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질문

1. 오늘날 남자와 여자의 질서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2.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여자의 역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3.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질서를 잘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아요.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5년 2월 9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216장
성경봉독	출32:7-14, 히11:24-26
설 교	중보자 모세의 기도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 “하나님께서 중보자 모세가 언약의 신실하심을 두고 간구할 때에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셨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
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섬기며 뛰놀고 있었습니다.

1. ‘이스라엘의 범죄’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곧 이스라
엘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랍시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한 후에 가장 먼
저 주의를 준 계명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나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출 20:22-23)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말씀하신 모
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하면서 철떡같이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나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니다. 출애굽 후에 지속적
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하며 불평과 원망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야웨 하나님을 빗대어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이는 언약파기이며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부터 광야 길을 마칠 때까지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 낮에
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야웨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는 비록 보이지 않으셨지만 밤낮 저들과 함께 계심을 많은 증거로 보여 주셨습니
다. 그러므로 이 범죄는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고 예배하였습니다.

특별히 아론은 그의 직분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우상 앞에 제단을 만들고 그 우상을 야웨를 대신한 것이라고 선포
함으로 이스라엘의 범죄를 정당화해주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만약 직분자가 성
도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가 너무 과격해서 진리에서
물러난다면, 잘못된 내용을 교회 안에 수용해 준다면 그는 백성들에게 죄를 쌓도록
부채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2. ‘하나님의 진노’

산 밑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을 때 산 위에서도 이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말
씀은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 새로
운 인류를 시작하시겠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이 ‘십계명의 서언’과 얼마나 다른가 알 것입니다(출20: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깨어졌음을 노골적으로 선언하심입니다.(출32:19)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백성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벗어났기에 모세가 안타까와하며 슬퍼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한 길로 속히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송아지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얹혀 놓을 때 이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파기를 선언하셨습니다. 정말 이 백성들은 바로의 말처럼 ‘목이 뺏뺏한 백성’이었습니다(9,참 출33:3)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는 말은 당신의 화가 얼마나 맹렬한지를 느끼게 합니다. 그 분은 ‘나의 이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도록 내버려두라. 말리지 마라’고 하십니다. 분명 그 백성들의 범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가중하고 완악한 범죄였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들먹거리며 인간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대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먼저 그의 의로우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습니다.

3. ‘중보자 모세의 간구’

그러면 모세는 이같은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모세는 참된 지도자이며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그는 교회의 참된 직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백성의 판결을 의탁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백성의 생명은 중보자의 손에 있습니다. 과연 모세의 생애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출2:1-11/히11:24-26)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야웨의 이 시험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그는 3가지 근거를 들어 간구함으로써 그 백성을 다시 야웨께로 돌려 드렸습니다. 1) 야웨의 은혜 - 구원원을 어떤 의(義)도 없을 때 오직 야웨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2) 야웨의 영광 - 야웨께서 친히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을 진멸하신다면 애굽이 주의 영광을 흠집낼 수 있다고 합니다. 3) 야웨의 신실하심 -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달라고, 그분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어찌하여’라는 탄식형 감탄사를 두 번(11,12)이나 연속하여 사용한 것은 오직 그 백성들을 위한 충성된 직분의 사역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신의 신실하심을 따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할 때에 그 백성들에게 내리시기로 하신 언약의 진노를 거두셨습니다.(14)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히7:24-25,롬8:26)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두고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십니다. 아멘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5년 2월 9일 주일오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604장
성경봉독	딤후 2:11-3:5
설 교	남녀의 질서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흔히 남존여비 사상에서 온 말로써 사용됩니다. 여자가 더 나서면 집의 가세가 기운다는 식으로써 굉장히 구닥다리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원래 새벽에 울어야 하는 건 수탉입니다. 새벽을 알리며 울어야 할 수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암탉이 우는 겁니다. 문제는 수탉에게 있습니다. 암탉이 울 수밖에 없는 그 집에는 역할과 기능이 망가져 있습니다.

1. 남성의 역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정해놓으신 ‘남자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잘 따를 때에 남자는 남자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남자다운 모습일까요?

디모데전서 3장에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서 감독의 중요한 자격이 나옵니다. 바로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3:2). 교회에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감독(목사와 장로)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하고서는, 곧 바로 ‘가르치고 주관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남자”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단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각 가정에서 감독 역할(가르치고 다스리는)을 해야 하는 모든 남편과 아버지가 그러해야 합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잘 살펴보면, 남자 성도라면 응당 갖춰야 할 모습입니다. ‘난 장로가 아니니까’라는 생각으로 무시할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장로가 아니라고 해서 두 명의 아내를 둔다거나, 술을 즐기거나, 구타를 하고, 자녀를 함부로 가르쳐도 되는 건 아닙니다. 남자 성도라면 당연히 한 가정을 가르치고 다스려야 할 직분자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3:5).”

에덴동산에서 아담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고 있는데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에 최초의 가정이자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2:14)”고 했지만, 그 죄는 꼭 여자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아담의 죄’라고 하지 ‘여자의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이 가장이자 직분자인 아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